

Crypto

Beyond Boundaries

Premier
Crypto Conference

유진투자증권에서 진행한 크립토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Hashed, Fireblocks, Sui Protocol의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스닥벤처팀 조태나_02)368_6174 tena@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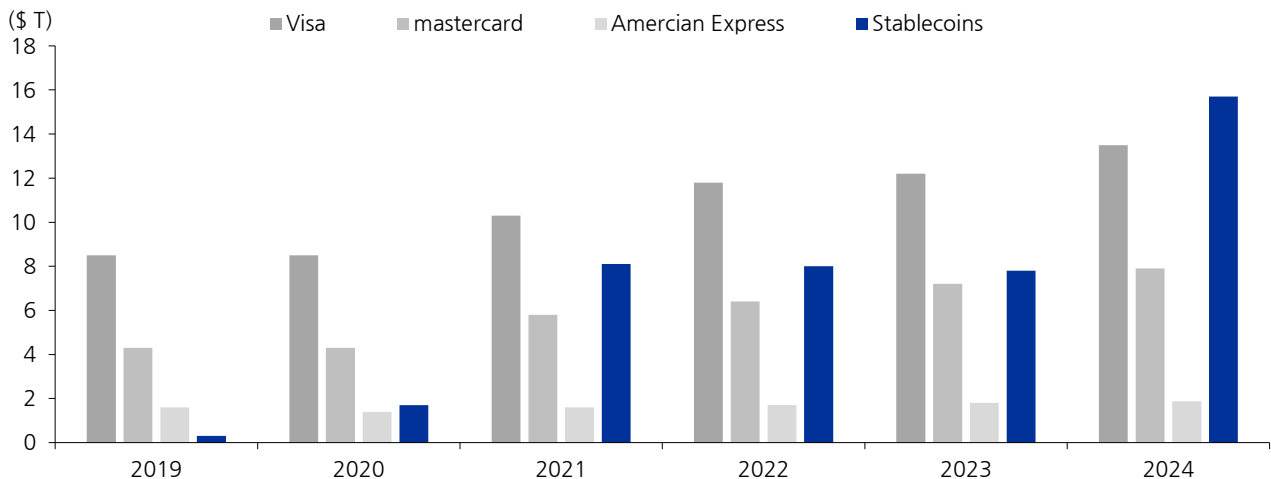
무너지는 경계,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전통 금융이 가상자산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때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권이 주저했던 가상자산은 이제 주요 금융 기관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거래량은 월 2,650억 달러를 초과하며, 이는 주요 카드사(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월간 결제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전통 금융권의 국경 간 결제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실질적인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금융 기관들도 가상자산을 자산 운용 및 결제 시스템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블랙록(BlackRock)은 블록체인 기반 BUIDL 펀드를 출시하여 디지털 자산을 기관 투자 포트폴리오로 편입했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토큰화된 채권과 부동산 펀드의 운용을 시작했다. 또한, JP 모건과 HSBC는 자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도 명확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비하며 전통 금융 기관의 가상자산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상자산은 점차 기존 금융 인프라에 통합되며,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경제 모델이 융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거래대금 비교 : Stable Coin vs 기존 지급결제 수단



자료: Ark Invest, 유진투자증권

I. Firebl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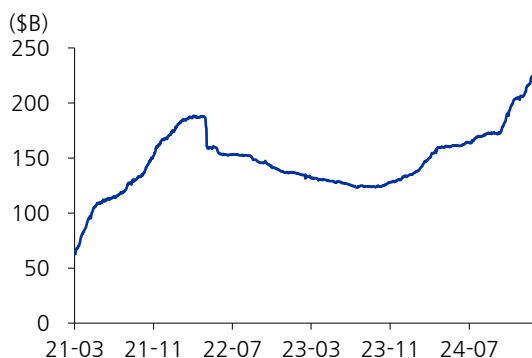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기관, 혁신의 시작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과 토큰화된 펀드의 출현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와 같은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토큰으로, 변동성이 큰 기존 암호화폐의 한계를 보완하여 가치의 단위, 교환 매개, 가치 저장이라는 통화의 세 가지 요건을 가장 충실히 충족시키는 가상자산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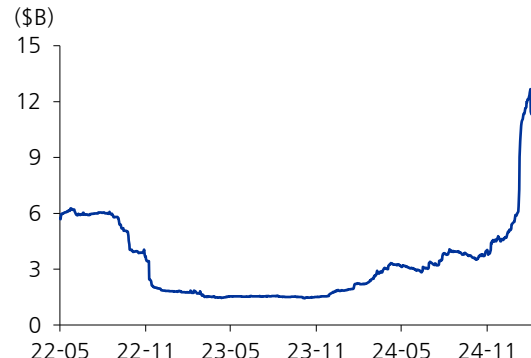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송금, 결제, 디파이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핀테크 혁신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2024 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약 60% 성장하여 연말에는 2 천억 달러에 근접했다. Fireblocks 네트워크 상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되는데, 지난 1 년간 Fireblocks 플랫폼에서 처리된 총 거래액 3조 달러 중 절반 가량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였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암호화폐 전체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거래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Fireblocks 네트워크는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약 10%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간 기업간 결제(B2B 결제) 부문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폭증하여 월간 기준 처리액이 약 2,650 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비자(Visa)의 글로벌 결제 처리액과 견줄 만큼 성장한 수준이다.

도표 1.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추이



자료: DefiLlama, 유진투자증권

도표 2. Solana 시가총액 추이



자료: DefiLlama, 유진투자증권

이러한 이용자 기반 확장과 더불어,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도 가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페이팔(PayPal)이 자체 미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PYUSD를 발행하여 화제가 되었고, 2022년에는 결제 프로세서 체크아웃닷컴(Checkout.com)이 Fireblocks와 제휴해 USDC 기반 결제 정산을 도입하기도 했다. JP 모건, 마스터카드, 비자 등 글로벌 Top 25 결제 기업 중 18 곳이 이미 어떤 형태로든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빅테크와 금융기관들까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속속 합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세대 화폐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향후 수십년 간 화폐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며, 대다수 블록체인 및 레이어2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유통을 중심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 확대와 기술 성숙이 계속됨에 따라 국제 송금, 무역결제, 디파이 담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금융을 혁신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도표 3. 토큰화된 자산의 잠재적 가치는 약 2조 달러로 전망 - 스테이블 코인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

2030 market capitalization, USD Tn (estimates)		% tokenized		2030 tokenized market cap USD Tn (base case)	CAGR 2023-2030
		2023 현황	2030 예상		
Derivatives ¹	<div><div></div></div> 2,800	Nascent	<1 bps	<div><div></div></div> <0.1	N/A
Alternative assets ²	<div><div></div></div> 570	0.2bps	2–5 bps	<div><div></div></div> ~0.1	130% ¹²
Bonds and ETNs ³	<div><div></div></div> 190	0.1 bps	10–20 bps	<div><div></div></div> ~0.3	100%
Loans & securitization ⁴	<div><div></div></div> 190	0.5 bps	15–25 bps	<div><div></div></div> ~0.3	75%
Intangible assets ⁵	<div><div></div></div> 180	Nascent	2–5 bps	<div><div></div></div> <0.1	N/A
Unlisted equities ⁶	<div><div></div></div> 150	1.5 bps	5–10 bps	<div><div></div></div> ~0.1	130% ¹³
Publicly listed equities ⁷	<div><div></div></div> 150	<0.1 bps	5–10 bps	<div><div></div></div> <0.1	190%
Mutual funds and ETFs ⁸	<div><div></div></div> 110	0.1 bps	30–40 bps	<div><div></div></div> ~0.4	140%
Alternative funds ⁹	<div><div></div></div> 35	<1 bps	60–70 bps	<div><div></div></div> ~0.2	100%
Precious metals ¹⁰	<div><div></div></div> 30	<1 bps	35–45 bps	<div><div></div></div> ~0.1	90%
Cash and deposits ¹¹	<div><div></div></div> 60 USD & EUR	30 bps	190–200 bps	<div><div></div></div> ~1.1	40%
Total value tokenized on blockchain by 2030 (excl. cash and deposits)				<div><div></div></div> ~1.9	75%

자료: Fireblock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Deal Logic,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Prequin, Savills, Statista, The Block, WFE, expert interviews, 유진투자증권

세션 후반부에서는 BUIDL 펀드를 사례로 토큰화 자산 운용의 현재와 향후 잠재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BUIDL 펀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2023 년 선보인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펀드이다. 발표에 따르면 BUIDL 펀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 형태로 펀드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이 달러화 머니마켓 펀드에 24 시간 실시간으로 접근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 혁신적 사례로 평가된다

전통 금융의 안정성과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을 결합한 덕분에, BUIDL 펀드는 출시 직후 시장의 큰 관심을 받으며 운용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했다. 출시 두 달만에 운용 자산(AUM)이 4 천만 달러에서 4 억 5 천만 달러로 확대되어 약 10 배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토큰화 펀드 상품에 얼마나 높은 수요를 갖고 있는지 방증하는 대목이다. Coinbase 등 가상자산 기업이 인프라 파트너로 참여하여 펀드 지분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 Fireblocks를 포함하여 규제를 준수한 커스터디 업체들이 자산 보관 및 관리에 관여한다. BUIDL 사례가 주는 의미는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tokenization)가 실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드문 선례라는 점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이 어려웠던 일이 현실화되었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블록체인 기반 펀드를 운용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로 키운 것은 금융시장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BUIDL 펀드의 성공은 기관 자금과 블록체인 기술의 접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다른 전통 자산들도 속속 토큰화된 펀드로 출시되어 시장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도표 4. 토큰화된 자산의 잠재적 가치는 약 2 조 달러로 전망 - 스테이블 코인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



자료: Fireblocks, 유진투자증권

한편, 글로벌 규제 동향도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자산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미국의 경우 2024 년 대선 및 의회 구성을 거치며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안 추진에 초당적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24 년 미 중간선거 결과 친(親)크립토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 준비금 규정, 커스터디 및 감독체계 등이 명확해져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명확화는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주류 금융 인프라로 격상시키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시장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역시 2024 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MiCA(암호자산 시장 규율법)를 통해 글로벌 최초로 포괄적 가상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특히 유럽 은행권에서는 이미 MiCA 기준에 부합하는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는데, 덴마크계 결제은행 뱅킹서클(Banking Circle)은 MiCA 규정을 준수한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세계 최초로 발행하였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선제적 회계감사된 스마트컨트랙트와 API 를 활용해 은행이 직접 발행한 것으로, 엄격한 규제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구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콩이 2023 년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싱가포르, 일본 등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글로벌 규제 준비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토큰화된 자산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제도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 장벽이 낮아지고, 기존 금융권과의 연결 고리가 강화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및 BUIDL 과 같은 토큰화 펀드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Fireblocks 세션의 결론은: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자산은 향후 금융의 지형을 바꿀 핵심 요소이며, 기술적 구현뿐 아니라 제도적 수용이 뒷받침됨으로써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Fireblocks 와 같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전통 금융과 크립토 간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II. Hashed

미래사회 경제에 대한 The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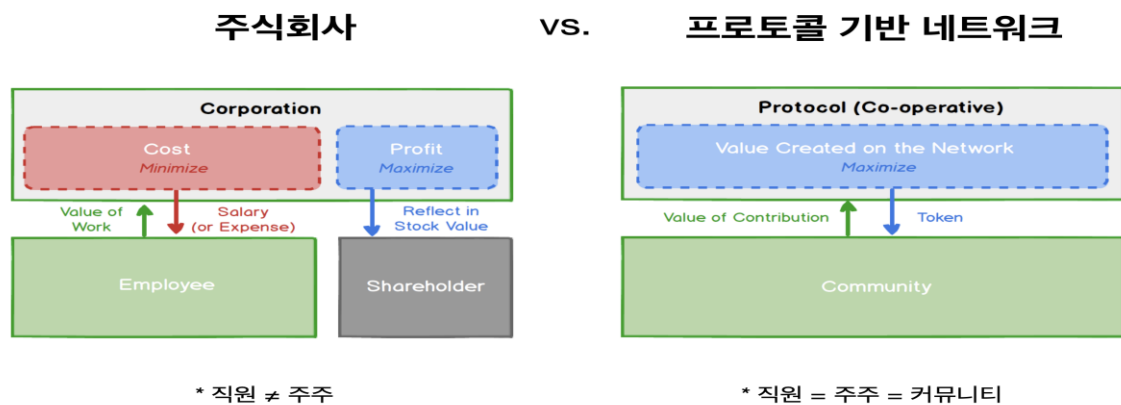
프로토콜 경제와 탈중앙화 조직

해시드(Hashed) 세션에서는 탈중앙화 조직(DAO)과 현실 자산의 디지털화를 키워드로 해시드의 투자 철학을 소개했다. 해시드는 “프로토콜 경제” 개념을 소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분산된 네트워크가 기존 중앙화 플랫폼을 대체하는 거대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탈중앙화와 프로토콜 경제가 이어질 다음 시대의 큰 물결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게 기본 견해다. 프로토콜 경제란 개인이나 참여자 그룹이 코드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여도 만큼 보상을 받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중앙 관리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프로토콜 위에서 돌아가는 경제 모델을 뜻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지분과 의사결정 권한을 나누어 갖고 공동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형태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프로토콜 위에 구축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모델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규칙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 중앙 플랫폼이 갖는 독점과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에서, 탈중앙화 조직(DAO)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세션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DAO는 ‘중앙관리자 없이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조직’으로, 최근 몇 년간 DAO의 수와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에 활성 DAO가 1만 개 이상 존재하며 (2023년 약 7,500개에서 증가), 주요 DAO들의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 수는 총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이 중 적극적으로 투표나 제안을 올리는 참여자는 320만 명 이상이다. 또한 DAO들의 treasury 규모도 2024년 중반 기준 309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1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DAO가 359개, 1억 달러가 넘는 대형 DAO도 36개나 되는 등 이미 상당한 자산 운용력을 갖춘 DAO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 Uniswap, Lido, Optimism, Arbitrum 등은 각각 자체 토큰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넘는 퍼블릭 블록체인 유니콘 DAO로 성장하여, 탈중앙화 거버넌스를 통해 프로토콜을 운영하면서도 거대 기업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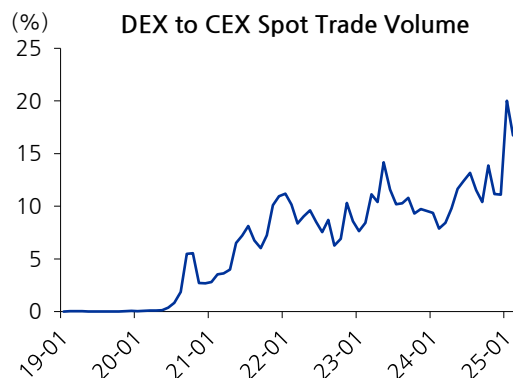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시드는 DAO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DAO는 참여자가 곧 소유자이자 의사결정자가 되는 구조이므로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과 참여 인센티브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의사결정 기록은 전통 조직이 갖기 어려운 신뢰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핵심 인력이 떠나도 커뮤니티에 의해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탈중앙화된 레질리언스(회복탄력성)는, DAO가 기존 기업 대비 갖는 강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DAO를 비롯한 탈중앙화 조직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인터넷 기반으로 국경 없이 확장되는 디지털 협동조합이자 차세대 기업으로서 DAO가 자리잡을 것이며, 해시드는 이 흐름을 선도하는 분산형 프로토콜들에 투자함으로써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표 5. 주식회사와 프로토콜 기반 네트워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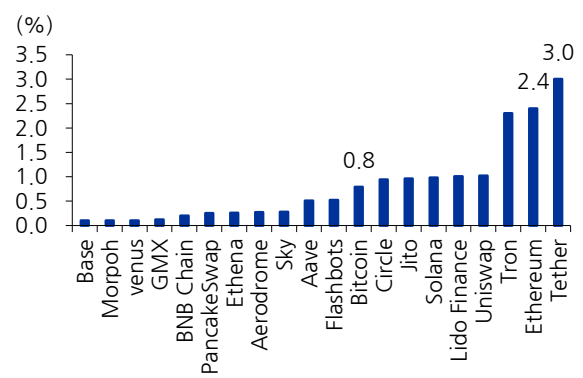
자료: Hashed, 유진투자증권

도표 6. DEX Dominance



자료: The Block, 유진투자증권

도표 7. 프로토콜 별 수수료 비교



자료: token terminal, 유진투자증권

현실 자산의 디지털화(RWA)

현실 자산의 디지털화(토큰화) 역시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부동산, 주식, 채권, 예술품 등에 이르기까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작업은 최근 업계의 화두로, 해시드는 이를 거대한 혁신과 새로운 시장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유동적이던 자산들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어 표현하면 거래 효율이 높아지고 접근성이 개선되어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사 BCG는 2022년 보고서에서 2030년경 토큰화 자산 시장이 16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세계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계경제포럼(WEF) 또한 2027년까지 전세계 자산의 10%가 블록체인에 기록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월가와 컨설팅업계에서도 자산 토큰화를 트릴리언(1조 달러) 단위의 기회로 주목하고 있다.

해시드는 일찍부터 이 분야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왔다. 해시드가 참여한 프로젝트 Joob이 그 좋은 예이다. Joob은 동남아시아의 승차공유 기업 Grab과 한국 한화그룹이 합작한 스타트업으로, 근로자가 획득한 미래 소득을 토큰화하여 선지급 유동화하는 소득 기반 RWA(real-world asset) 플랫폼이다. 해시드는 조브의 시드 투자자로 참여하여, 동남아 현지의 급여채권을 블록체인에 올려 근로자와 영세상인의 자금 조달을 돕는 혁신에 힘을 보탰다.

현실 자산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자산 거래의 편의성 제고를 넘어, 전통 금융권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원을 제공하고 글로벌 자본 접근성을 민주화할 잠재력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토큰화하면 소액 투자자도 빌딩의 지분 일부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신흥시장 기업도 전세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10년간 실물자산 토큰화가 가장 거대한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시드는 이러한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가속화할 수 있는 프로토콜과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 준수와 시장 신뢰 확보 측면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III. Sui Protocol

A Ground Breaking year

Sui 의 끝없는 성장

SUI 는 Meta(페이스북) 출신 개발진이 주도한 Mysten Labs 가 개발한 플랫폼으로, 2023 년 메인넷 출시 이후 개발자와 이용자 커뮤니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SUI 네트워크는 출시 첫 해 폭발적인 성장 지표들을 기록했다. 활성 계정 수가 1,800 만 개를 넘고 총 트랜잭션 처리량이 45 억 건을 돌파하며,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2024 년 한 해에만 2,400 명 수준에서 약 19 만 6 천 명으로 81 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일 트랜잭션 수도 1 만 3 천 건에서 43 만 건 이상으로 32 배 넘게 급증하여 네트워크 활동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온체인 활성도와 생태계 확장에 힘입어 SUI 의 토큰 시가총액은 2025 년 1 월 기준 약 136 억 달러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 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10 위권 이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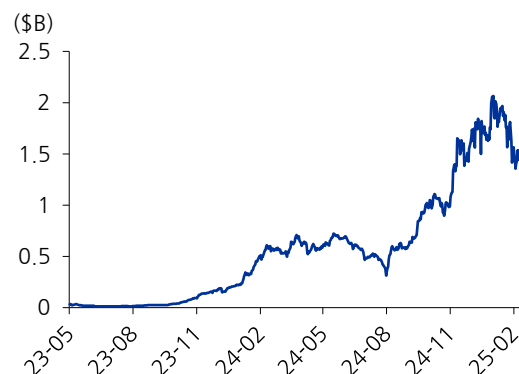
DeFi(탈중앙화 금융) 지표도 두드러지는데, SUI 의 DeFi 에코시스템 총 예치 자산(TVL)은 2024 년 4 분기에 급성장하여 2025 년 1 월 한때 20 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불과 3 개월 전인 2024 년 10 월 경 10 억 달러 수준에서 두 배로 뛴 수치로, 현재는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8 위 규모의 DeFi 생태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기관 참여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SUI가 차세대 블록체인 시장의 주요 업계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표 8. Sui 체인 트랜잭션 추이



자료: Suivision, 유진투자증권

도표 9. Sui 체인 Total Value Locked



자료: DefiLlama, 유진투자증권

SUI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징으로는 고성능 처리 구조와 안전성이 강조되었다. SUI 는 Rust 기반의 Move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를 사용하며, 병렬 실행 엔진과 독자적 객체 중심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높은 확장성과 처리 속도를 구현했다. 세션에서 SUI 의 신규 합의엔진인 Mysticeti 를 통한 성능 시험 결과를 공유했는데, 2024 년 SUI Basecamp 컨퍼런스에서 Mysticeti 엔진이 초당 29 만 7 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지연시간 390 밀리초로 즉각적 최종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기존 레이어 1 대비 10 배 이상 개선된 성능으로, 종래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나 가능했던 초고속 처리 수준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한 것이다.

또한 나르왈(Narwhal)과 터스크(Tusk) 등 고속 합의 프로토콜을 적용해 트랜잭션 확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초당 수천 건 이상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 병렬 실행과 객체 지향 설계 덕분에 트랜잭션 간 간섭을 줄여 대용량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는 특히 게임이나 실시간 금융 애플리케이션 등 저지연 고성능 dApp 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Move 언어 기반의 메모리 안전성과 수수료 절감 구조, 그리고 영지식증명(ZKP) 등의 도입으로 보안성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점도 SUI 의 기술적 강점으로 소개되었다. 요약하면, 고도화된 스마트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SUI는 확장성, 속도, 안전성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어 개발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용처에 대응하는 탄탄한 기술 기반을 갖추었다.

SUI 세션에서는 이러한 기술 토대를 바탕으로 한 생태계 확장 현황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 디파이(DeFi) 분야에서는 AMM DEX 인 Cetus, 대출 프로토콜 Suilend 등 핵심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성장하여 유동성 공급을 견인하고 있다. 2024 년 4 분기 SUI DeFi 의 누적 거래량은 분기말 기준 443 억 달러에 달해 직전 분기(45 억 달러)의 10 배 수준으로 폭증했으며, Cetus 는 분기 거래량 522% 증가와 TVL 2 억 1 천만 달러, Aftermath 등 다른 프로토콜도 5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주요 프로토콜들이 생태계 성장을 주도했다.

SUI 자체의 인프라도 한층 성숙하여, 2024 년 하반기에는 Sui Bridge 출시로 외부 체인과의 자산 이동이 원활해지고, SUI 의 온체인 주문서인 DeepBook 이 자체 토큰(DEEP)을 출시하며 메이커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동성 풀의 덤스를 강화했다. 특히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와 홍콩 인증 달러 FDUSD 의 네이티브 발행은 SUI 생태계에 법정화폐 온램프를 제공하여 디파이 참여를 크게 확대시킨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DeFi 부문의 성장과 더불어, 게임 분야에서도 SUI 의 도약이 부각되었다. SUI 는 웹 3 게임에 특화된 블록체인을 표방하며 대형 게임 스튜디오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SUI 위에는 장르를 불문한 다양한 게임들이 개발 중이며, 2025 년 출시 예정인 신규 게임만 약 70 여 종에 이르고 이를 위해 65 개 이상의 게임 스튜디오가 협업하고 있다고 소개되었다. 간단한 메신저 연동 캐주얼 게임부터 대형 AAA 급 게임까지 폭넓은 라인업이 준비되고 있으며, 원활한 게임 구동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예: SuiPlay 장비)와 엔진 최적화(Mysticeti V2, Remora 업그레이드) 등 인프라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SUI 는 게임파이(GameFi) 영역에서 대중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SUI 세션은 뛰어난 성능과 활발한 생태계 조성을 근거로 SUI 블록체인의 향후 전망을 밝게 제시했다. 빠른 이용자 증대와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세를 감안할 때, SUI 는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네트워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향후 디파이와 게임을 아우르는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이었다.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4.12.31 기준)